

# 증권사,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개선권고 외면

대형사 절반 사실상 겸직 상태  
메리츠·KB 등 일부 변화 움직임  
당국 “내부통제 체계 확립 취지”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귀를 닫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증권은 이사회 의장을 장원재 대표에서 이상철 사외이사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용 컨설팅 과정에서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직 분리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KB증권은 김성현 대표에서 양정원 사외이사로, KB자산운용은 김영성 대표에서 장병화 사외이에게 이사회 의장직을 이양했다. 금감원의 권고 대상으로 꼽힌 금융투자회사 11곳 중 3곳만이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나누는 제도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도 책



여의도 증권가.

/손진영기자 son@

임 주체를 특정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임원진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금감원이 우선적으로 짚은 개선사항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과 ‘각자대표 체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상이 됐던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곳 중 25개사(47.1%)가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27곳 중 11곳(40.7%)이 겸직 중

으로 집계됐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교수는 “자금의 집행자와 결재자가 동일할 경우, 부패와 금융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 대표직과 이사회 의장은 각자 분리해서 서로를 이중으로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중, 삼중으로 결재 단계를 분류하고 전문성을 부여해도 부정 한 사고는 재발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 체계를 형성해 사고를 예방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중에서는 선제적으로 이사회 의장을 이관한 KB증권과 메리츠증권 외에도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이 최고경영자(CEO) 라인과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다. 사실상 대형사의 절반이 겸직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책무구조도 제도에 따라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신설된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이해상충 해소방안을 마련했으며, 추가적으로 이사회 의장의 대표이사 총괄관리 의무 감독과 관련한 이사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는 대신에 하위 조직에서 관리·감독 구조를 보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증권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직접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은 오너이자 CEO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지만,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가 겸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흐름에서 대신증권 역시 오익근 대표가 아닌 오너 3세 양홍석 부회장이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의 겸직을 개선하라는 권고는 내부통제 체계를 잘 만들어서 책무 구조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였다”며 “오너가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오너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조정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의 취지는 권력 분산인데,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 이사회 의장직에 합당한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향후 당국의 지적사항이나 개선 요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금융위,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예정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수천억 차익 의혹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여부 관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사진)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전망이다.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해 수천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하이브는 뒤늦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이달 초 대비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증권위)에 전달됐으며,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직전인 2019년 무렵, 일부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고지해 이들의 보유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PEF)에 매각하게 만든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당시 이미 상장의 필



수 절차인 지정감사인 선임하고 IPO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방 의장이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 정보를 숨긴 채 지분을 할값에 넘기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PEF가 방 의장과 가까운 전직 하이브 간부들이 세운 펀드였다는 점이다. 방 의장은 해당 펀드와 ‘상장 후 차익의 30%를 나눈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결과적으로 약 4000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중대한 이해상충 계약이 IPO 당시 증권신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인 공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하이브는 2020년 13만5000원에 상장한 뒤 주가가 42만원까지 급등했으나, 해당 PEF가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며 단기간에 70% 가까이 급락했다. 보호예수 제도를 피하기 위해 우회 매각을 택한 정황도 뚜렷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대주주가 직접 팔 수 없는 상

황에서 펀드를 앞세운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철저적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내부자의 구조적 설계에 의한 이익 편취, 공시 누락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방 의장의 정산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중형 이상의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첫 사례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국거래소를 첫 방문지로 택해 “불공정거래는 시장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청약 개시

10년물·20년물 최고 가산금리 부여

미래에셋증권은 2025년 개인투자용 국채 7월 청약은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9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번 총 발행예정한도는 1400억원이다.

만기별로 발행예정금액은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 규모다.

7월 개인투자용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에 각각 역대 최고 가산금리인 0.5%, 0.675% 부여됐다. 세전기준 만기수익률(연평균 수익률)은 ▲5년물 16.08%(연 3.21%) ▲10년물 39.47%(연 3.94%) ▲20년물 98.90%(연 4.

94%) 수준이다. 가산금리가 포함된 해당 수익률은 만기 보유시에만 적용된다.

지난 3월 제도 개선으로 도입된 개인투자용국채 5년물은 4개월 연속 초과 청약이 기록됐다.

5년물 기준 청약률은 3월 약 191%, 4월 약 164%, 5월 약 158%, 6월 약 121%에 달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연내 ‘액침형 냉각 ESS’ 상용화 계획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리딩기업 목표

### 코스닥 기업탐방 지투파워

태양광·ESS 등 전력설비 제조  
AI·빅데이터 기반 국내외 사업 확장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전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강소기업 지투파워의 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10년 창립 이후 중전기기와 재생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며 국내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선도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한 회사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전력솔루션 기업으로 변화를 가속하고 있다.

지투파워는 초기 배전반, 태양광발전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설비 제조에 집중하며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2013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고,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조달우수제품 인증 등을 바탕으로 공급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전년보다 약 11.5% 증가한 550억7800만원, 영업이익은 36억5000만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22년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제2도약을 선언한 지투파워는 ‘AI 기반 스마트그리드 솔루션’이라는 차별화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투파워는 최근 AI 진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배전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고압·저압반에 자체 알고리즘을 적용해 부분방전(PD)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고 전기화재나 설비 이상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방전 패턴을 분석해 유지보수 비용은 줄이고, 예측 정확도는 높인 것이 강점이다.



지투파워 본사 전경.

ESS 분야에서는 절연 열화 상태를 AI로 진단해 화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정책에 대응해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액침형 냉각 ESS’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투파워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주요 경영방침으로 설정하고, 조직 내에 ‘해외사업본부’를 신설해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략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한다.

지투파워의 최종 목표는 ‘에너지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스마트그리드 IT 솔루션 리딩 기업’이다. 이를 위해 ▲초격차 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 확대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가지 전략방향을 설정했다.

김영일 대표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 인도,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지에서 배전반, 태양광 발전장치, ESS 등 해외 시장 진출과 함께 사업 확장 및 다각화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창출, 신사업 발굴을 통해 미래 전략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주주와 투자자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kdh@